

2011 VOL. 12

HEENYUN PRESBYTERIAN CHURCH **희년동산**

CONTENTS

2011 VOL. **12**

영상 에세이

포토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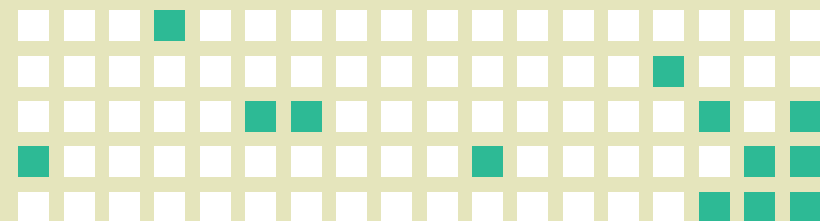
말씀 _ 믿는 자의 두가지 특성	06
칼럼 _ 바ibles 사이언스②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12
QT _ 크리스천 리더쉽④ 착한 사람	15
특별기고 _ 나의 교계 활동과 대외사역에 관한 소고	19

사역

찬양 _ El Shaddai 찬양단	29
겨자씨 한 알	32
전도 _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35
사역 _ 살롬~ 희년교회 교우여러분	38
교육 _ 성경학교를 다녀와서	40
선교 _ 2011년 몽골 단기선교 실천방향과 결실	42
사랑의 도구가 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46
사랑받아 마땅한 땅! 요르단	50



지리산에서_ 집사 신재영



간증

간증 _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54
또 하나의 기쁨	56
하나님의 은혜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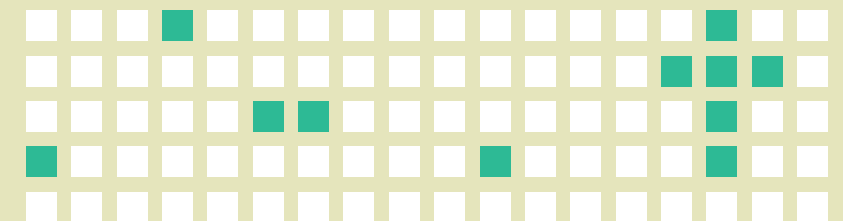
토픽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AS 센터	62
하나님의 예비하심	64
기다림...	68
일생을 통해 신앙의 8층집을 지어온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	70
경건과 형제사랑	75

희년한마당

편지 _ 금암 1동 희년교회를 떠나며	79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8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6
내 아들과 딸에게	90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92
독후감 _ 우리의 기도, 희년동산	96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100
기도문 _ 추수감사절 기도	102
사행시	104
시 _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과 아직도 못 다 부른 노래	106

편집후기	108
------	-----



희년 새생명축제 2011. 10.30 희년교회 곳곳

이번 새생명축제는 1·5·3운동을 통한 달란트 기부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이 행사를 위해 특별 릴레이 기도가회도 진행되기도 하였다. 초청된 영혼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전교인이 함께 이끌어간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행사였다.

1·5·3운동이란?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을 초청하여 세 사람을 구원시키고 삼분씩 기도와 전화를 하는 운동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희년의 미래!!! 잘 밀어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목장도 최고예유~



희년의 종교당부도 열씨미! 열씨미! 주께 다가갑시다.



우리나라 마음의 대개
우리 종종 공짜관람 한다우~



발을 씻기는 대신 구두를 닦는 현대판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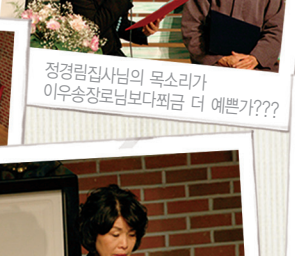
주일 오후예배를 충만하게~~코람데오 찬양단



감나무, 너는 하나님 없이
홍시 맴글 수 있나?



부부중창단 아델포스~ 부부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니 참~아름다워라.



정경림집사님의 목소리가
이우송장로님보다 조금 더 예쁜가???



엄마 같았던 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깨진 그릇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권사님. 감사해요



중학생인 우리들도 한 몫 했어요..



머나먼 타국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년교회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몽골학생일동



얼썬!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소서~~



직지만 큰.. 희년의 미래 일꾼들~~ 청년부, 사랑해요.



쥬빌리, 하나님 찬양하는 덴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마라나타.. 찬양하라,
희년의 성도들이여!!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믿는 자의 두 가지 특성”

벧후, II Peter 1:4-9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누린 듯하나 매우 혼란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쉽게 말하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믿는 사람의 특징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칭하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혼합된 자리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Global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육적으로 선택된 족속이 아니었으며, 민족적으로 수 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샤머니즘과 유교적 전통 아래서 길들여진 무속신앙 상태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으며,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에 때로 더욱 혼탁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요란한 욕망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패망할 수 있는 유혹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어떤 특성을 가졌습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4에서 다음 두 가지로 그 특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특성으로 정욕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적극적인 특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자의 양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 신자는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와 영으로 구분하여 지으셨습니다. 육은 쇠하고, 결국은 썩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육의 특징은 썩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존재해야 할 영혼은 무엇을 좋아해야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아니 그것으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은 신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는 말은 '도망한다, Escape'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육체의 정욕을 도망하여 달아나듯이 피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도 육신의 정욕을 마주 대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즉 도리어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잘하는 것은 베드로 후서 2:20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정욕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즉 부정하고 허망한 일들이 도전되어 올 때는 즉각 피하십시오. 도망하십시오. 아예 상종을 하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피하는 특성입니다.

2. 신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1:4절에 계속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 Divine Natures 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8가지의 성품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For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to add to your faith goodness; and to goodness, knowledge;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and to knowledge, self-control; and to self-control, perseverance; and to perseverance, godliness;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and to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and to brotherly kindness, love."

사도 베드로는 이 여덟 가지 성품은 신앙인이 평생동안 이뤄 갈 건축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중심한 신앙생활이 집을 짓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렇습니다. Pensacola 시절에 태풍 Opal을 만났습니다. 해변에 있던 집 한 채가 태풍에 날려 그대로 바다가운데로 날라 갔습니다. 주인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한동안 명소가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집들이지만 태풍이 오고 나니 허망한 집과 견고한 집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집을 지은 자와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믿음의 집을 지은 자는 시험이 오면 압니다. 도전이 생기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집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터와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전서 3:11은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거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집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20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주님입니까?

이런 기초 위에 주님의 성품을 닦아가는 신앙의 8층 집을 지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8층집을 지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층에 따라 신앙의

Quality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층 집이나 8층 집이나 삶의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리는 삶의 Quality는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1층 집짓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도 구원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8층 집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은 훨씬 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신앙의 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영어 본문은 더 분명합니다. 이런 영적 Quality를 소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신앙의 층이 높아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더 분명하고 깊게 된다는 것입니다.

Chicago에 가면 왜 Sears Tower를 올라가려고 합니까? 자동차로 시내만 보던 시카고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보는 시카고와 Tower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시카고는 분명 그 보는 감격이 다를 것입니다. 높이 올라 갈수록 멀리 그리고 넓게 보기 마련입니다.

1층 믿음에서 보이는 교회와 8층에서 보는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덕의 눈으로 보는 교회와, 경건의 층에서 내려다보이는 교회는 전혀 다른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즉 신앙의 층이 높아질수록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1:9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 소경이 되면 축복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 소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일어날 앞날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바라 볼 줄 모르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만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며 불안해 하며, 심지어는 불평과 원망스런 삶으로 겨우 겨우 살아갑니다. 근시안이지요.

그리고 영적 소경이 되면 과거의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집이 낮으면 지난날의 주홍빛 같은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앞날에 주님이 베푸실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오늘을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라면 모두가 다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살 난 아이와 열 살 된 아이가 부모를 아는 것에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살 되었을 때 부모를 이해하는 것보다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면 부모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자신이 자녀를 기르게 되면 그 때야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부모를 이해하고 아는 것에 차이가 있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그 신앙의 층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사랑의 8층집을 짓고 나면 그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주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신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8층집을 잘 이루어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층을 더할수록 그 얻고 누리는 열매가 풍성하게 이뤄지기를 축원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0-21절)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많은 액체들 중에서도 특히 물을 사용하셨다. 그것도 자그마치 생명체 무게의 약 70%나... 그러기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의 3대 영양소보다 먼저 물이 있어야 된다. 화성탐사선이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데 물을 찾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물(H₂O)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되어 물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수소기체나 산소기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

는 물질이다. 분자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한다. 이것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분자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서 물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든다. 과학자들은 이 힘을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물의 성질은 다른 액체들의 성질과 많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우선 물의 첫 번째 특징은 끓는점이 100도로 높고 어는점이 0도로 낮다. 거기에서 바닷물처럼 염분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끓는점은 올라가고 어는점은 내려가서 액체로 존재하는 온도 범위가 더 넓어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의 온도가 쉽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으며 어지간한 온도에서는 쉽게 기체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70%가 물로 덮인 지구는 온도가 극한상황으로 가지 않으며 우리 몸 역시 단백질 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36.5도의 체온을 계절에 상관없이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물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을 잘 녹여 그것들이 우리 몸의 영양소가 되게 하지만, 지방은 녹이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을 잘 보호한다. 우리 몸은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집합체이며 이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세계와 구분이 된다. 그런데 이 세포막이 지방으로 되어 있어, 물에 전혀 녹지 않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물대신 석유나 에테르와 같은 액체로 우리 몸이 채워져 있다면 세포막이 쉽게 녹아 흘러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액체가 고체보다 더 무겁고(밀도가 높음),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 추운 겨울에 물이 담긴 항아리가 깨지는 원인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물은 특이하게도 섭씨 4도에서 가장 무겁다. 그래서 물이 어는 과정을 보

면 온도가 점차 내려가다가 4도가 되면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 위의 물이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면 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강이 얼 때 강의 안쪽에서 부터 어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서부터 얼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얼음의 밑에 물이 존재하고 얼음은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 생물체가 추운 겨울에도 얼음물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안쪽에서부터 언다면 바다나 강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겨울이 되면 냉동되어 다 죽어 없어 질 것이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물이 고갈되어간다는 뜻이다. 엄마뱃속의 태아는 97%, 갓 태어난 아기는 77%, 20세 전후의 젊은이는 70% 정도가 물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60%로 줄어들었다가 늙으면 50%까지 줄어든다. 늙어가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수분이 부족해서이다. 따라서 물은 생명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수인 것이다. 이렇게 귀한 물을 생명체를 창조하시기전에 미리 만드시고, 그 물을 바탕으로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과학적인 원리가 내포되어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38 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예수께로 다가가면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착한 사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말을 더러 듣는다. “저 사람 왜 그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돼?” 꽤나 실망한 말투이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어 보았는데 믿지 않는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湖山-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에 큰 무리가 모여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해변에 서 있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썩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눅 8:5~8)

그러나 온 무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다시 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눅 8:11~15)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은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아벨과 가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3~7)

하나님께서 가인을 선택하지 않고 아벨만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어떤 사마리아인과 한 제사장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벨에 속할까 아니면 가인에 속할까? 아마도 가인에 가깝겠지?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피해 버리고 말았으니까 양심상 떳떳하게 낫을 들고 다니지는 못했을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죄를 범한 것이 될까? 단지 불선했을 뿐이고 그저 알고도 행하지 않았을 뿐인데. 결국 선을 행하지 않으면 착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마는 것인가?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을까?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 그래 선을 행했느냐 선을 행하지 안 했느냐가 하나님의 눈에 들고 안 들고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는 말인가? 하기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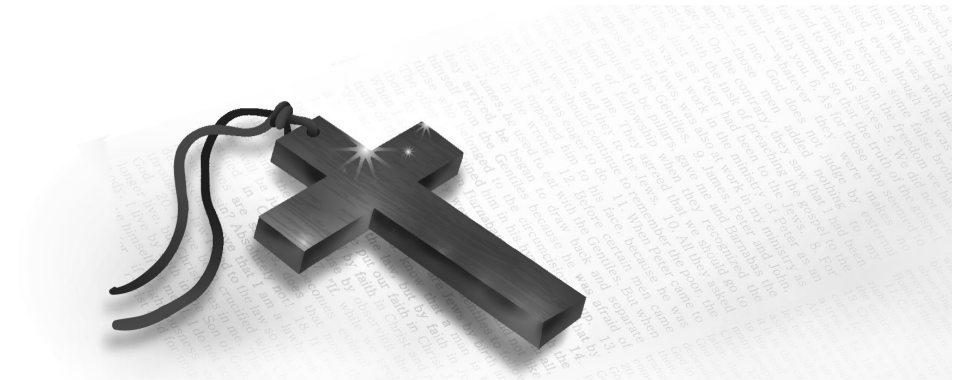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2)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덩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6~20)

QT

하나님께서서는 강한 자, 실력자, 지식인을 리더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착한 마음의 소유자를 리더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착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교계 활동과 대외사역에 관한 소고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개신교 교인들로서 교파와 교단과 지교회에 소속되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속한 회년교회(이하 “우리 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이라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교파나 교단, 그리고 다른 교회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속칭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형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바울이 전도하고 세웠던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로마가톨릭교회를 비판하고 출발한 종교개혁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그 당시를 회고할 때, 지상의 교회는 이단이 아닌 이상 모두

존재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교회(또는 개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타 교회나 교단과 교파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이 땅에 더욱 확대·발전한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일찍이 양희천 장로님 (이하 "양장로님")과 작고하신 서진석 장로님 (이하 "서장로님")의 권고를 받아서 교계의 연합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분 장로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연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서장로님이 전국남신도연합회에서 매년 여름에 주관하는 남신도수련회에 참가하도록 권해서 1980년 초부터 십여 년 간 부부동반으로 수련회의 단골 멤버로 참여하였고 장로가 되어서는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장로대회에 오랫동안 참석하였는데, 기장신학과 한국교회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할 기회가 되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 노회 활동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교회(또는 개교회)가 모여 노회(어떤 교단에서는 지방회)를 구성하고 노회가 모여 교단의 총회를 조직하는데, 노회는 노회 소속의 목사와 지교회가 파송하는 장로총대로 구성되고, 총회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목사와 장로 동수)로 구성되어 각각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담임목사와 부목사)은 당연직 노회 회원이고, 매년 당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장로는 총대장로로서 노회에 파송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전북동노회는 노회 규칙으로 임원(노회장을 위시한 9명의 임원), 8개의 상비부, 8개의 위원회, 10개의 정기위원을 두고 활동하며, 위원회 내에 각 지역을 관장하는 5개의 시찰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북부시찰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공천업무와 노회제출서류(목사 청빙서류 포함)의 경유를 맡아 실시합니다. 노회에 속한 교회를 지교회(속칭 개교

회)라 하며, 노회의 재정부가 제안하여 책정한 매년의 상회비를 지교회가 납부함으로써 노회는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교회가 아무리 노회를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 해도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가 아닌 이상 최소한의 인사문제(목사의 청빙과 사임 및 장로고시) 만은 노회를 통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노회의 회원(목사회원과 장로 총대)은 산하 조직의 구성원이 되어 노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목사의 인사문제와 헌법 해석 등은 정치부가 다루기 때문에 지교회와는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수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며 총대로 나갑니다. 저는 장로 된 지 7년째 되는 1999(?)년부터 2009. 3월까지 간격을 두고 노회 총대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혁규정에는 만 65세가 넘으면 당회에 들어가지 않는 비시무사역장로가 되지만 당회가 결의하면 노회 총대로 파송되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66세가 되어 비시무사역장로인 저에게도 2008.3~2009.3월까지 노회 총대로 나갈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부노회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95년 7월에 김태수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심으로 새 담임목사님을 모셔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시무장로였다가 목사임직을 받으신 옥봉선 목사님을 임시당회장으로 노회에 요청해서 모시고 새 목사님 청빙절차를 밟았습니다. 미국에 계시던 이윤재 목사님(이하 '이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청빙 결의하여 서류를 갖추어 시찰회를 경유해서 노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속했던 전북노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처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아서 시찰회 경유와 노회의 결의를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총대가 아니었지만 시찰회 경유 시에 양장로님을 따라서 시찰

장을 면담하였고, 그 후 노회에도 나가보아서 그 때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1998년에 전북노회에서 전북동노회가 분립하였고, 우리는 전북동노회에 속하였는데, 이목사님이 취임한 후 1999년도에 김종식 부목사님의 사망 사건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노회에서 우리 교회와 이목사님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아 공식, 비공식으로 해명하는데 당회원들이 무진 애를 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노회 안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양장로님이 “중대형교회의 식견이 갖춰진 장로들이 노회에 참여해야 노회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저에게 수차 말씀하신 것이 심중에 꽃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대로 파송된 이후 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맡았던 직책은, 96회기(2001.3~2002.2)에는 감사, 98~103회기(2003.3~2009.3)에는 부회계, 회계, 재정부장관, 선교부 회계, 사회복지부장·재산관리위원회 서기를 거쳐 부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처음 노회에 가보니 아는 분도 별로 없고 회의 절차와 진행과정이 너무 생소하고 복잡했습니다. 양장로님 곁에 붙어 앉아 물어보기도 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익숙해져 갔는데, 노회는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른 장로님들에 비하여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가져서 노회 총대로 나갈 기회와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노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다른 장로님들이 노회에서 책임을 맡은 것은 전북노회 시절에는 작고하신 김태수 목사님이 오래 전에 노회장을 역임하였고, 전북동노회에서는 95회기(2000년도)에 양희천장로님이 부노회장을 역임하였고, 양순균장로님이 101~102회기(2006.3~2008.3)에 부회계를 거쳐 회계를 역임하였습니다.

장로 수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는 장로 한 두 분이 매년 빠지지 않고 총대로 오시는 반면, 큰 교회의 장로님들은 띄엄띄엄 총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히 노회를 작은 교회 장로님들과 노회에 전담하시는 목사님들이 주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돌아가면서 총대를 보내고 있지만, 노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장로님이라면 한분은 거의 고정적으로 매년 총대로 보내는 것도 우리 교회와 노회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 남신도회와 장로회 활동

(1) 남신도회 활동

노회의 신도회 산하에 노회의 남녀신도회가 조직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특히 여신도회 활동이 활발하여 우리 교회 여신도회가 노회 여신도연합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 노회 남녀신도회가 모여 전국남여신도회 총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서장로님이 추천하여 1987년에 전북노회 남신도연합회의 임원(회계)을 맡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활동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국남신도 평생회원이 되어, 2008년도에는 전북동노회 남신도회 평생회원 위원장을 맡았고, 오랫동안 남신도회의 실행위원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저는 남신도회보다는 장로회 활동에 치중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양순균 장로님이 전북동노회 남신도회 회장을 2010 연도에 역임했습니다.

(2) 장로회의 활동

장로회는 노회나 총회의 산하 단체가 아니고 비공식 단체이지만, 각 노회에 지역장로회가 구성되어 있고, 24개 지역장로회가 모여 전국장로회 연합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동 장로회와 전국장로회 연합회에는 2001년도부터 상당한 책임을 맡아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전북동장로회에서는 2002.3월

부터 2006.2월까지 협동총무, 감사, 부회장, 회장을 맡아 봉사했고, 전국장로 회연합회에서는 2002.3월부터 2009.2월까지 재정위원회 서기, 재정위원장, 부회장, 감사, 차기회장,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한편 2003~2008년까지 총회교육원의 장로교육강사로 봉사하였습니다. 장로회의 활동은 우리 당회에서 총대를 파송하지는 않지만,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직간접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다른 장로님들의 활동상을 보면 황길택장로님이 2008년도부터 회계와 부회장을 거쳐 2010년도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정석곤장로님이 2010년도부터 임원(부회계, 회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4. 총회 활동

24개 노회가 파송한 총대(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기장총회 산하에는 임원(총회장을 위시한 8명의 임원), 유지재단이사회, 연금재단이사회, 한신학원 이사회, 사회복지법인한기장복지재단이사회, 재판국, 총회교육원, 헌법위원회 등 15개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회는 매년 46명의 총대(목사 23명, 장로 23명)를 선거(노회장과 임원 일부는 자동 총대가 되는 노회 규칙이 있음)를 결정하여 총회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총회 활동에는 총대로서의 활동과 총대가 아닌 목사·장로로서의 활동으로 나뉘는데, 저는 일찍이 양장로님이 길을 열어주어 2001년 1월부터 2011.3월 까지 10년 넘는 기간에 총회의 산하기구인 한신학원 이사회(한신대학교와 영생고등학교)의 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시발로 해서 총회에서는 총대로서 여러 직책을 맡아 활동한 바 있습니다. 88회기(2008.3~2009.3)와 93·94회기(2008.3~2009.3)에 각각 실행위원과 '교단화합을 위한 5인전권위원회'의 서기, 89회기(2005.3~2006.3)에 특별조사위원을 역임하였고, 총회 교육원에서는 2003년~2008년까지 장로교육강사를 맡았으며, 2011.9

월부터는 비총대로서 공천을 받아 한기장복지재단이사회의 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총회와 우리 교회의 관계는 좀 먼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지교회의 법적인 문제는 대부분 총회 헌법에 그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적어도 담임목사와 장로는 총회 헌법에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등 직분자의 자격이나 청빙·임직, 각 회(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구성과 의결사항과 권한 등은 총회 헌법의 정치편에 기술되어 있고, 권징조례에 의거하여 권징이 행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개혁규정'이나 제정을 시도 중인 '정관'은 총회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규정의 일부를 '교회의 민주화나 지도자의 내려놓음'에 도움이 되도록 총회헌법의 일부를 완화 또는 강화한다는 점에서 총회 헌법과의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5. 기독교 기관과 단체에서의 사역

저는 기독교인과 장로로서 우리 교단 이외에 타교단이나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여러 기관과 단체 등에서도 봉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전주대학교)의 이사회 감사를 1984.9월~1990.3월 까지 역임하였다가 다시 1999.8월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재임하고 있고
- *2002.11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학교법인 예수대학(예수대학교)의 이사회 감사를 역임 중이며
- *전주 CBMC 감사 겸 초찬성경공부인도자로 2003.2월~2004.12월까지 봉사하였고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수양관(원암수양관)의 이사회 감사를 2004.10월~2006.12월까지 역임하였고
- *2005.2월~2009.8월까지 4년간 통합측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의 감사를 역임하였고

*2005~2009년에 전주 YMCA의 이사와 감사로 봉사였고

*전주권의 초교파 55교회 80여명의 장로로 구성된 전주장로합창단에서
2009~2010년 부단장을 거쳐, 2011년에 단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고

*학교법인 성암학원(남서울대학교-천안 소재)의 이사회 감사로 2011.10월
부터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 장로연합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중 양희천 장로님(고문 역임), 황호선 장로님(서기 및 부회장 역임), 황길택 장로님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6. 나가는 말

저는 평소에 저의 생각과 활동을 '오렌지 속'에 비교하여 말 하곤 합니다. 제 직업(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이외에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여러 조각이 껍질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하나의 오렌지를 이루는 것처럼 제 마음과 활동이 흩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번잡하게 활동하다 보니 정작 우리 교회에서 성도와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였는지 자문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소홀한 점이 많았으리라 반성하며 지면을 통해 교우들과 장로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계의 활동과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이끌어 주신 선배 장로님들의 지도와 우리교회라는 배경이 있었고, 동료·후배 장로님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단이 아닌 교계 활동과 사회 활동은 노회나 총회의 총대 신분이 아니고 저의 전문직업과 개인적인 역량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마저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못나고 교계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

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의 교계 활동과 사회 활동을 회고하며 얻은 점과 잃은 점, 보람과 후회를 짚어 봅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한 투자(시간과 돈과 정열과 관심)가 필요한데, 이런 투자에 비하여 실속?은 비교적 초라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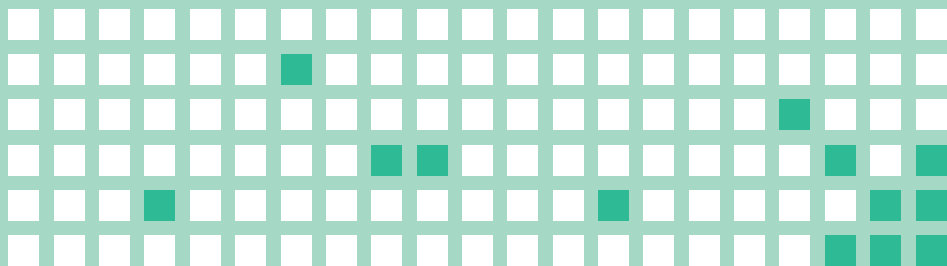
그러나 보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이하 '단체')에서 봉사할 때, 그 단체가 갈등하고 싸우는 꼴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단체나 싸우면 망한다'는 철칙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어느 단체에서나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기면 저는 화해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자원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단체들이 정상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많은 관계자들이 이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주로 제 직업에 관련된 '감사'의 직을 많이 맡았지만, 적발하고 처벌하는 감사가 아니라 예방하고 지도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감사로서 순기능을 하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였고 제가 하는 대외 사역으로 인해 우리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내년에 만 70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이제 대부분의 대외 사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관'을 제정하려고 시도 중에 있는데, 비사무사역장로의 대외사역(노회 총대 파송)에 관한 부분을 개혁규정에서 해석·적용하거나 정관에 규정함에 있어 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픈'된 정신으로 해당 장로님들을 더욱 격려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제언해 봅니다.

사역

01 MINISTRY



| 찬양 | 김세욱

El Shaddai 찬양단

엘 샤다이

Vocal 송은희, 김세욱 Piano 김영진
2부성가대 지휘자 김세욱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그저 대중들을 위한 세상노래에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공허함과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함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마음 중심에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목소리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찬양에 갈급한 어려운 교회를 순회하며 사역하자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어 부름에 순종하여 찬양단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 같은 합창단 단원인 송은희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하는 김영진 집사님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어 지난 2월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1개월 정도 연습을 하다가 찬양단의 이름이 필요함을 느끼고 평소 존경하는 강순홍 목사님께 찬양단명을 부탁드리게 되었고 지금의 〈El Shaddai〉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El Shaddai〉라는 뜻은 창세기 17장 1절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단,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가는 곳마다 찬양으로 그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찬양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17일에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상림교회에서 저희 찬양단의 첫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10여분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에 어떻게 저희를 사용하시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찬양의 주제는 “은혜”였습니다. 부활절이 오기 한 주 전이어서 주님이 그러한 주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8월7일에는 우리 회년교회에서 두 번째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날의 주제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생명의 길을 통한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김영진 집사님이 봉사하는 교회여서 그런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되어 실수도 많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9월18일에는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충신교회에서 세 번째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막 개척되어진 교회여서 성도님들이 적었지만 지난 그 어느 찬양예배 때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의 주제는 “예수”였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찬양이 한 곡 한 곡 들려질 때마다 저희 찬양단원들과 성도님들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 찬양단은 원래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를 순회하며 봉사하기를 원하며 만들어진 찬양단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전주인근 교회만 다니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부족하여 단원이 3명뿐입니다. 사명감으로 함께 할 분들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저희 찬양단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어느 곳이나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기에 이 사역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이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

The Parables of the Mustard seed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에 속한다. 겨자씨는 725-760개가 있어야 겨우 1g이 되는 극히 작은 씨앗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겨자씨 한 알을 정원에 심으려고 하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데 이 씨는 일단 땅에 뿌려지게 되면 몇 주 만에 45m나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며 이 나무는 큰 가지를 내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가지에는 많은 새들이 동지를 틀고 깃들게 된다. 작은 겨자씨 안에는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력이 내재해 있는 겨자씨의 생명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국을 누룩과 함께 비유하신 성경 말씀이다.

젊은 20대 초 학창시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한 때 많은 신앙적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지라 설교 시간의 말씀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느꼈고 그 중에 특히 익

숙한 말씀 중 하나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후에 ‘겨자씨 한 알 만큼의 믿음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신앙적 고민을 갖게끔 하였다. 뿌리 깊은 뽕나무나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도전하지도 못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 나의 신앙적 믿음의 깊이인 것 같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의 그릇이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다는 죄책감마저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동안 “겨자 씨(seed)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우리(나)를 말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씀을 믿음의 뜻대로 삼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 올 때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의 모태(motive)가 되어 주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늘 그랬듯이 직장을 구할 때나 타지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늘 함께 해 주셨고, 곁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 때 감사함과 찬양이 나의 삶에 항상 넘쳐나게 했다. 사람을 세워서 쓰실 때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에 담대함이란 귀한 선물을 주셨다. 이러한 담대함은 나의 삶이 변화되는 큰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우리의 인생 80살을 하루로 비유한다면 나의 삶은 현재 오전을 막 지나가는 12시쯤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가장 활동적이고 잠깐의 휴식도 필요한 시간이지만 항상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비전을 주심을 알고 있기에 그러한 역경을 딛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면 나의 맘에 늘 부족한 부분을 감사함으로 늘 채워 주셨다. 그러한 감사함은 교만이 싹트지 못하도록 늘 지켜 주었고 지속적인 연단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단련시켜 새로운 변화에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글로리아 찬양대 팀장으로 세우시고 사용할 때도 그랬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나갈 때 늘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 우리는 지금 처한 현실에서 섬김과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연약한 자의 손을 잡아 주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섬김과 순종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에 필수 요건인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 하신다”라는 히브리 격언이 있다. 단단한 곡식이나 포도도 부서져서 맛있는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된다. 단단한 음식도 잘게 부셔야 소화가 잘 되고 흡수력이 높아진다. 호홉과 같이 귀한 찬양을 하는 우리에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리아가 자신을 더욱 낮추고 혹시 있을 묵은 쪽정이 습성은 벗어 버리고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늘 감사하고 기도와 섬김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다. 찬양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귀한 찬양의 호홉이 되어야 하고, 준비된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변화 시켜야 한다.

살다보면 포장이 잘 된 길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신앙적 건강이나 감정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가끔은 큰 시련의 둔덕을 덜컹하며 넘어가야 하는 때도 있다. 잘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들의 관계나 신앙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때는 우리의 삶을 바로 정렬(Align)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렬의 방법은 기도와 섬김이라 생각되어 진다.

겨자씨 같은 한 알 한 알의 믿음을 가진 우리 회년 공동체들이 주안에서 성장하여 성령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게 됨을 믿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건설하는 큰 일꾼이 모두 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진행된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청년부와 어린이부의 올 해 사역정리와 내년 계획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바쁜 때인지라 왜 지금 꼭 가야하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사실 의문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압박)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허리가 구부리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때였지요.

이렇게 부담을 안고 억지?로 간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첫 날은 암기에 대한 부담과 밀려질 업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즐거움이라기보다 의무감으로 강의를 들었고 수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음 날 있을 암기시험(패 두툼한 복음 제시용 개괄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를 해야 해서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밤샘 공부는 효력이 있어서 둘째 날 시험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째 날부터는 전도폭발임상훈련의 내용들이 편안하고 깊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엔 복음제시 현장실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며 복음제시를 하다 공원에 홀로 앉아있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유학생회에 지쳐 삶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 말 그대로 심신이 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제시하자 청년은 결심하며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3일 간의 실습기간동안 복음을 제시한 모든 사람들이 100% 결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저는 이를 통해 전도의 기쁨을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의 열심 있는 모습이 회년성도들의 모습과 겹치면서 강팍했던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회년성도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다른 분들이 다 주무시고 계실 때 전주로 내려오면 만날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분당에 있는 사촌동생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계단에 앉아 복음제시를 하자 사촌동생은 자기는 죄인이라 천국에 갈 수 없다 말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사촌동생은 아버지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기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제가 전폭훈련을 받길 얼마나 잘했나 생각했습니다. 그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촌동생은 결심했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며 자신은 죄인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사촌동생은 할렐루야 교회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평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술 취한 동네 아저씨에게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좋아했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

러나 그 전도대장이 성장해서 신학생이 되고 사역자가 되면서 전도보다는 양육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일(job)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임상훈련 기간 동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전북대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훈련에 보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훈련에 가기에 앞서 육체적으로 3kg 뺐는데, 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 다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상훈련을 통해 다시 불어 난 3kg은 더 튼튼해진 제 영혼의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훈련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을 전도폭발팀과 중보기도팀,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 뒤편에서 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잘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주마! 하며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샬롬~ 희년교회 교우 여러분~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희년 가족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도 이루어주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레임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희년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0년의 깊은 신앙의 역사를 가진 희년교회에서 사역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강순홍 목사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도우시는 이정근 목사님, 박인순 전도사님, 엄익주 전도사님과 동역하게 됨을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우님들과 함께 희년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 20일 희년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날은 제 평생에 매우 감동스러웠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저의 가족을 기쁘게 맞아 주셨던 여러분의 모습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스한 사랑으로 맞아주신 우리 희년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친구이며, 동역자인 고재정 전도사, 그리고 저희 부부의 사랑의 결실 아들 유하준과 저를 포함해 세 식구가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아들의 세상에 빛을 본지 100일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 하준이는 이제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께서 저희 가족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희년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이 기쁨이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일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년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은혜 가득한 삶을 위해 저희 가족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년 동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

성경학교를 다녀와서

1박 2일 동안 성경학교에 갔다. 두 번째 날 첫 시간에는 우리에게 안 좋은 식품에 대해 배웠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을 구분해서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있을 물놀이 때문에 나와 아이들은 모두 들떠 있었다. 각자 준비를 한 뒤, 인공 잔디로 깔려있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서가 날아온 물풍선에 맞았다. 물풍선을 맞자마자 지서는 던진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똑같이 물풍선을 던졌다. 그 때부터 물풍선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행히도 나는 물풍선을 잘 피해서 물 한 방울에도 젖지 않았다.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더 무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 선생님이 6학년 여자애들을 잡아서 계곡물에 빠뜨려 던졌다. 나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다보니 물에 빠진 애들보다 더 힘이 들었다.

그 뒤에는 다 함께 모여 찬양을 불렀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다, 찬양은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는 흑기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조별로 모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배우며 연극도 했다. 같은 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저녁시간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

다. 성경학교 중에 이 시간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회개를 하다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다. 기도를 하는데 온 몸이 짜릿한 느낌이 들었다.

그 짜릿함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른 뒤 온갖 칭찬을 해 주셨다. 기도 시간이 끝났어도 그 짜릿한 느낌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일을 감사히 받고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다음에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회개시간 후에는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빵과 음료수를 서로에게 먹여 주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주었듯이 나도 친구들에게 웃으며 빵을 나누어 주었다. 모두가 빵을 먹으며 웃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조별로 선생님과 공과를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써보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고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자는 애들을 깨우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애들이 새벽에 일어난다고 맞춰 놓은 알람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자고 일찍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성경학교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돌아왔다.

성경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배우다보니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 갈 수 있어서 기뻐다.

또 잘못된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린 마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끝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후에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2011년 몽골 단기선교 실천방향과 결실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42절 예수께서 열두제자를 마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열두제자란 하나님이 교회세움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 사명자와 파송교회와 현지선교사가 협력하였습니다

희년교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몽골인 예배가 활성화 되어 몽골인과 함께 하는 교회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몽골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바트나산 선교사를 중심으로 2010년 희년몽골인교회가 독립되었고 이주민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몽골을 택한 이유는

첫째, 희년몽골교회와의 협력사역입니다

희년몽골교회의 리더인 바트나산선교사는 몽골에 있는 동안 몽골 교도소 재소자와 가족을 위한 NGO 단체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한국에 이주하여 살고있는 동안에도 매년 1회씩 몽골교도소를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복음과 섬김의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희년 해외선교의 초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가야할 선교지입니다.

우리나라 주변국가 중에서 희년교회의 봉사 지향적인 선교의식과 연관지어 볼때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몽골(약300만명)의 경우 복음화율이 2%대(4만명)를 넘지 못하고 있고, 몽골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재앙인 사막화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생태선교를 수행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몽골은 한국의 정서와 매우 흡사한 민족입니다.

몽골인을 볼때 눈동자, 피부색이나 어순 등 우리민족과 같은 동질감을 갖고 있고, 몽골인들 또한 한국인을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문화의 전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3. 말은 달란트와 봉사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① ‘나 ○○○’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재화, 예능, 사귄, 교육 등 은사)
- ② 맡겨 주신 그 달란트를 이번 단기 비전트립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 ③ ‘나 ○○○’는 몽골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정근, 김성중, 설정래, 김경중, 정민생, 임봉환, 최경식, 한인철, 이진원, 임재선, 김새배, 송길화, 김사랑, 정내혁, 성경삼, 바트나산, 아마르자르갈 17명의 전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사역에 집중하였고, 드디어 4개조로 나뉘어 전도한 결과 4개조 모두 전도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4. 실천적 모임을 통해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 ① 인원동원 홍보 및 항공권예약
 - ② 선교교육진행 출석체크 (역할분담)
 - ③ 일정확정 및 비자취득
 - ④ 예산확정 및 모금계획 (바자회, 일일찻집)
 - ⑤ 일정에 따른 집회 준비 (차기 바통을 이어받을 청년부를 중심으로)
 - ⑥ 기도요청 나눔 - 기도제목 인쇄
 - ⑦ 기도회 모임 출석체크
 - ⑧ 선교용품, 선물 점검
- 공연초대행운권 제작 (전도지 배포용) - 공연장비 : 음향 세트 구비

5. 믿음으로 마침내 현지 교도소와 마을, 교회에서의 공연사역을 실현했습니다.

- ① 몽골교도소 3곳 1200여명, 교회 2곳 700명, 마을 1곳 300명에게 하나님나라를 선포했습니다.
- ②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여 몽골인 8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 ③ 몽골 현지 사역자와 함께 몽골현실을 들여다 보며 현지에 맞는 선교 방법을 찾았습니다.
- ④ 농산물유통 사업가를 만나 현지 비즈니스사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 ⑤ 몽골교도소 사역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6. 몽골 선교지에 대한 비전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목적은 영혼구령입니다.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야말로 그들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서 몽골의 선교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현지선교사와 희년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담은 바로 몽골 게르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여명의 소수 가정교회 단위로 세워가는 몽골식 선교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몽골 제1호 희년 게르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구가 되지 못하였음을 용서 하소서...

소년원 팀사역을 마치며...

~그들이 문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요8:7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
하노라(요8:15절)~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소년원 학생들과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함께 했던 팀 사역을 이제 마무리 하려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쓰임 받도록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제 삶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시간이지만 소년원을 방문할 때 마다 에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눈물이 그들의 마음을 고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늘 소망했습니다. 돌덩이보다도 더 단단히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외되고 고립된 그 학생들이 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180명이라는 적지 않은 학생들 중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단 한명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붙들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도구가 되지 못한 채 슬그머니 도망치려 합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소년원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너무 겁나서 학생들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제대로 예배를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점점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눈인사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단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하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마냥 전날부터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나섭니다.

사실 자유가 없는 막힌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아이들에게 크게 감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일선물로 받은 아이다스 양말 한 켤레를 힘 센 친구가 빼앗아가기가 일쑤고 생일도 아닌데 나와서 받아가는 일이 허다해 종종 숫자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러 나오는 학생들은 평균 80~90명 정도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옆 친구와 농담을 하거나 욕을 하며 떠드는 아이가 대부분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학생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매 달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최경식집사님의 마음을 시작으로 위셋과 마술, 연극, 찬양, 영상 등을 준비했고 그나마도 안 되면 모처럼 기숙사에서 나온 딸아이에게 플룻 연주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소년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했지만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힘들었던 부분은 장로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면 흔쾌히 승낙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어떤 장로님들은 “다음에...” “바빠서...”라는 말씀을 하시며 기도를 거절할 때 울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많은 장로님들께서는 소년원을 함께 방문하여 눈물로 기도를 해 주시고 담당목사님이신 이성운 목사님을 위해 헌금도 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지나고 보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소년원 예배를 가기 전 날에 아이들의 간식과 생일 선물을 마련하고 예배주보를 따로 준비하는데.. 소년원이 작은 개척교회와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감사한 것은 남편의 동참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사러 다니는 것을 보다 못한 남편은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가는 저를 보며 “나랑 함께 가자...”하더니 말없이 묵묵히 따라 나서기 시작하면서 저의 일이 반절로 줄었습니다. 저는 소년원 선교를 통해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도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의 믿음의 키가 조금이나마 더 자랄 수 있었고, 남편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늘 제게 많은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윤효숙 장로님과 함께 동참해 격려해 주셨던 우리 목장식구인 노일현 권사님과 장금자 권사님 내외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원치 않은 일들이 물결처럼 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쓰러 질수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표를 써야 하는 절박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풍랑이 이는 높이만큼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원치 않는 물결이 넘칠 때 주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질병도 풍랑도 사표도...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느냐를 믿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년원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쩌다 친구와 함께 저지른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지금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곳에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 부모를 원망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도 잠잠케 하실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가 출소를 했으며 난데없이 저를 찾아와 좀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날들 속에서 저에 대한 작은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에게 파스한 겨울 잠바하나를 사 입히고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 친구들과하고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약속과 기도를 하고서 보냈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씩씩해 보여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원 학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3년 동안이나 소년원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어떤 분이 새롭게 이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그들에게 새 날개가 돌아날 때까지 그들을 좀 더 따뜻이 감싸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땅! 요르단

한국에도 겨울이 찾아오듯이 요르단에도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기후인 중동 땅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요르단이지만, 겨울만큼은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회색의 돌산들이 초록빛 물결로 넘실거려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풀 한포기 없던 땅이 계절이 바뀌어 푸르른 들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땅에도 부흥의 계절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화충격은 생각치도 못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해서 거실을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 모습도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기준을 상대방에게도 적용시키기 때문에 잘 차려입고 나서지 않으면 말을 거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 뿐 아니라 길을 걷다 보면 이상한 말로 놀리며 돌을 던지는 아이들을 종종 부딪치기도 합니다. 또한 자매끼리 시장을 보러 나가면 젊은 청년들이 성적인 농담을 던지며 저속한 눈빛을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문화를 당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식탁에 앉아있는 것 같은 소외감은 사실 이 민족을 섬기러 왔다는 것을 망각할 정도의 미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분의 위로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위로가 아닌 질문을 제게 던지셨습니다.

“네가 이들의 상처를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은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유향불의 심판을 받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의인이었던 롯과 딸들의 어리석음으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 동생에게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 에돔족속, 그리고 사라의 질투로 어머니와 함께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

바로 이 민족들이 요르단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은 영적계보에 올랐지만 2인자로 전락해서 약속의 자녀들과 대적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겪은 이들의 아픔과 상처는 오늘날에도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부풀려 다른 이로부터 상처와 무시를 받지 않으려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요르단 땅과 이 민족에게 오랫동안 내려져 오는 씌여져 있었습니다. 제 무지함으로 이 민족을 미워했던 제 못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새로운 시선과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아모스 9:11~12)

마치 버려진 것만 같았던 이 민족들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다만 이들은 그 사랑을 기억치 못하고 헛된 것에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쓴뿌리가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르단 땅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그 날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19)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요르단과 중동 북아프리카를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전방에서 후방에서 함께 기도하면 그 날은 속히 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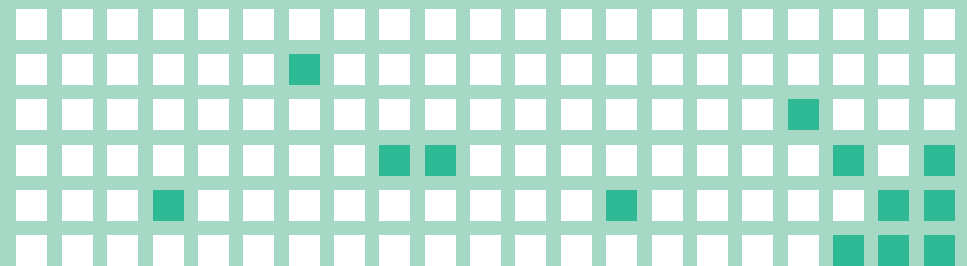
요르단은 사랑받아 마땅한 땅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간증

02

TESTIMONY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글을 쓴다는 것은 쉬우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올 해 창작동화『그래 나도 할 수 있어』라는 2번째 개인
문집을 발간하기 전, 이 책을 계획하면서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집필에 들어가니 의외로 쉽
게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책을 계획하면서 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미련한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꿈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글을
쓰기를 원합니다.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원고지를 앞에 놓고 작품구상을 하
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의 순수한 마음을 적어 보아라.”

나의 순수한 마음? 과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 번 이리저리 생
각해 보았다. 이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지 의심이 들어 주님께 물었다.

“주님, 어떻게 써야 하나요?”

“지금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지만, 전주천이 맑고 고요하게 흐르고 숲속에서 새
들의 지저귀는 합창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 그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글로 써 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나는 곧바로 원고지도
아닌 복사지 뒷면에 떠오르는 글을 끄적거리려 나갔다. 그
것이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A4
용지 몇 장을 채워 나갔다. 이렇게 쓴 글을 정리하다보
니 내가 쓰고 싶었던 줄거리가 잡히면서 하나의 작품이
되고 마침내 한 권의 동화책으로 낼 수 있었다. 이 작품
은 내 능력과 머리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발간 후 주
위에서 칭찬이 자자해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였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이 작품을 읽는 청소년
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또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망설이지 말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
나감으로써 창공을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회가
닥치면 과감히 행할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바란다. 이
런 기도로 준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
는다.

또 하나의 기쁨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잠시나마 공부하여 글 속에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머릿속으로 만의 생각이었지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 그리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여자 친구를 만나고 교수님의 인도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하라고 주신 자료에 있는 ‘교로 은혜를 입다’라는 글을 보면서 부부와 가정 그리고 만남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떠올리면서 가족의 의미와 인연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재정리하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확신반 수업을 받으면서 들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구원의 말씀과 더불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확신반 교재에 있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교회에서 여자 친구를 보는 것이 주일 오전에 있는 자그마한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동시에 사역의 부르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신반 교재의 글처럼 믿음을 실천하려는 제 여자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봉사를 맡기시든지 제가 옆에서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 또한 삶의 새로운 기쁨과 보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른 아침에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예비 며느리인 은주 전화번호가 찍혀있었다. 그리고 메시지도 왔다.

“오늘 웨딩 촬영 날이라 메이크업 받으러 가고 있어요. 벌써 다음 주가 결혼 날 이라니..., 사진 예쁘게 찍고 오겠습당”

미국은 부모가 자녀들의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홀로서기를 한다. 참 좋은 문화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까지 보살피주며, 죽을 때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가지 않는가? 자녀가 부모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어느 가요의 노랫말처럼 앉으나 서나 자녀생각으로 세월을 보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결혼이 부모가 치러야 할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임에 틀림없다.

요사이의 자녀들이 연애결혼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孝)라고 한다. 우리는 둘만 모여도 으레 자녀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단골 메뉴인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이들도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결혼을 생각조차 못하는 자녀들

이 많다. 과년한 딸들은 안정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시대 흐름에 따라 만혼을 하기도 하고, 나이 서른 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높은 눈높이의 배우자를 꿈꾸다가 홀로 살기도 한다.

나는 다행히 큰아들과 둘째아들이 일찍 연애를 하여 나보다는 3년 늦은 스물여덟에 결혼을 했다. 큰애는 2003년 봄에, 둘째는 그보다 2년 뒤 가을에 결혼을 했다. 둘째가 결혼하는 날, 막내도 두 형처럼 2년 뒤에 결혼하는 축복을 받으라고 기도를 했다. 막둥이는 대학을 1년 다니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공부를 해 한 학기를 앞당겨 8월에 졸업했다. 이듬해 가을 서울로 간다기에 천만 원을 주어서 보냈다. 서울에 가면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좋은 배필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키가 크고 이목구비만 제대로 갖춘 아가씨면 되었다. 예부터 개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더니 키만 크고 이목구비가 훤한 아가씨만 지나가면 내 눈은 휘둥그레지며 상인이를 생각하게 되었다. 병은 자랑해야 하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막내를 자랑하며 중매를 부탁하곤 했다. 막둥이가 서울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우리교회에서 시무하시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께도 좋은 아가씨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어머니는 이따금 성화를 대셨다. 다른 집은 아빠와 엄마가 서둘러서 다 결혼시키는데 우리 부부는 막둥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속을 태우는 것은 나였다. 어머니는 막둥이가 집에 내려올 때마다 수사관이 범죄자를 수사하듯 아가씨 언제 데려오느냐, 친구 영주는 벌써 애가 돌인데 너는 언제 결혼하느냐며 다그쳤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태 전까지만 해도 막내는 결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어서 아가씨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막내가 서른이 되니 더 애가 났다. 큰며느리와 둘째며느리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막내는 시큰둥했다. 내 권에 못 이겨 선을 한 번 보았다.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선을 또 보았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 2세가 걱정되고 점점 확장되는 자영업이 안정되어야 할 것 같아 결혼이 더 서둘러졌다. 다행히 작년 설에는 결혼을 하려는 뜻을 비쳤다. 그렇지만 아가씨가 신앙생활이란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그게 힘겨울 거라 생각했다.

이게 웬일인가? 지난 3월 깜짝 뉴스가 있었다. 작년 11월부터 여자 친구가 생겼다는 거다. 대학 다닐 때 눈독을 들였던 의상학과 후배라고 했다. 막내가 여자 친구와 경기도 평택에 사는 둘째네 집에도 갔는데 키가 크고 예쁘다는 이야기였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는 늦게야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간구대로 깜짝 특별선물을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밤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나에게 구하라고 하셨다. 그때 왕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나도 막내며느리 감이 신앙생활을 하고 키가 크기만을 간구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미모까지 지녔다니 금상첨화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이어서 감사할 뿐이다. 어느 주일인가 은주가 우리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한 권사님은 아가씨가 모델 같다고 칭찬을 해주어서 어깨가 으쓱해졌다.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우리 회년교회예배당에서 막내아들 상인이 결혼식이 있다. 전 날 새벽예배 때 막내 결혼식 날이 좋은 가을 날씨에 ‘가나’ 혼인잔치가 되도록 구했다.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나왔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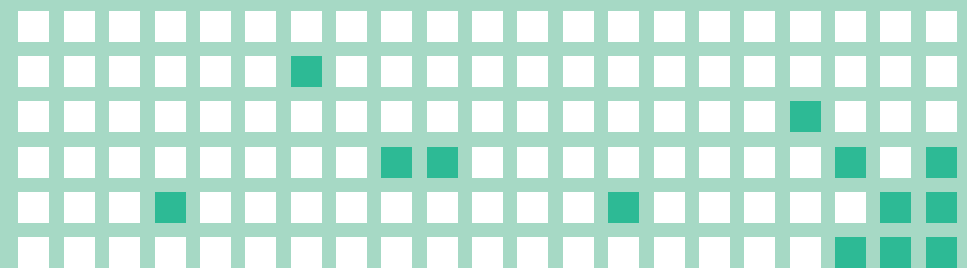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는 성경구절이 생각난다. 하나님, 장미꽃 가시도 주셨지만 장미꽃을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 **가나 혼인잔치** :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 ‘가나’ 마을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푼 잔치

신앙의 8층집 토픽

03

TOPIC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AS센터



10월4일 그녀가 강순홍 목사님과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드리는데 주일에 사모님은 저에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지요?”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물음을 받고 저는 세례를 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저에게 1년간의 교제가 끝나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은 내년 2월에나 할 수 있을 거라고만 기대했습니다. 주일마다 언제 그녀를 데려 올 거냐고 묻는 많은 분들의 물음을 그냥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말씀 속에는 ‘이 청년이 올해 안에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라는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보다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더 강력했던지, 11월19일 저는 그녀와 결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그녀의 생일에 평생 저와 함께 해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저에게 QT 과제도 내주고 그녀가 준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서로 나누며 서약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웬지 결혼 후에 제가 그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각서처럼 내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녀와의 서약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드디어 저도 그녀에게 서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아리 만들기 서약서’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고, 기도하며, 성경 읽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함께 약속을 할 겁니다. 또한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지침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가정을 만들자고 서로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녀를 만나고, 회년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파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마침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난 1년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킨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봄에는 새싹 같은 그녀를 저에게 돌려 해주시고, 여름에는 열매를 주셔서 달콤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가을에는 낙엽을 떨어뜨려 그녀와 걸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하나님의 나무 밑에서 그녀와 결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AS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혼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아들, 딸 잘 낳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회년 가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희년교회의 김광석 형제의 예비 신부 박현경입니다. 희년동산의 원고를 부탁받고서 글을 쓰기 시작하기까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혹여 이 글 어딘가에 저의 의가 드러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드러나고, 김광석형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연말을 맞아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신앙 이후 20대에는 쪽 세상에서 떠돌던 탕자였던 제가 30대가 되어 주께 돌아온 지 3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반, 교회

에 반만 다리를 걸친 반쪽짜리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팀으로 섬기며, 확신반과 성장반을 통해 양육을 받으면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서른셋의 연말을 맞아 내년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니 무언가 아득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이 이대로 좋은가? 결혼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탈출구를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직장에서 교류하던 중국의 한 대학교로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을 전액 장학생으로 생활비까지 지원받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대학원 진학을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 선택이 과연 옳은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선택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물음이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말에 목사님과 순장님의 심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기는 하셨지만, 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기도 없이 하는 선택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장님이 “언니, 확신반과 성장반 마치고 이제 순장으로 섬길 차례인데 어디를 간다고 그러세요~” 말하는 그 순간, 저는 무엇인가를 순식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자! 내가 중국에서 3년간 공부하고 오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양육 받은 것을 순장으로 섬기며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어쩌면 청년 때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을지도 모르는데, 청년부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두 말 할 나위가 없겠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 결과 유학에 대한 고민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2011년 청년부 순장 자리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 2010년 12월 21일 김광석 형제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습관들을 잘라내면서 함께 잘라내었던 것이 바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불신자여도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하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새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형제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풍성하게 가진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선사될지 모르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 책을 권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교제할 수도 있음을 전했고,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이 책을 모두 읽고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그 책을 단숨에 읽고 돌려주었고, 2011년 2월에 회년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형제의 몸과 영혼까지 구원한 자매라고 평가해 주셔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단박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 이전에 알게 모르게 그를 향해 쌓인 기도의 분량이 찼고,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이르매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끼질이 아홉 번 되어 있던 그에게 저는 열 번째 은혜의 도끼질로 사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김광석 형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자의 작은 순종을 큰 충성으로 여겨 주신 여호와와 예비하심을 그를 통해 증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유익을 위해 유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순장으로 섬기기로 작정하였던 작은 순종을 크게 보시고, 계획에도 없었고 예상조차도 못했던 결혼이라는 축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2011년 11월 19일 결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첩장의 초대 글귀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적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김광석형제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양육으로 인도해 주신 회년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회년교회의 지체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를 부부로 맺으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끝까지 쓰임 받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부족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석형제와 박현경자매는 2011년 11월 19일 부산 파라곤 호텔에서 은혜 넘치는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

기다림...



생일을 보름 정도 앞 둔 다섯 살 된 딸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내 생일에는 장난감 세 개를 살 거예요. 그런데 내 생일이 언제예요? 그냥 오늘 내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당장 선물을 사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쉬워합니다.

다섯 살 된 아이에게 15일이라는 시간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묻습니다.

“엄마, 나 언제 선물 사 줄 거예요?”

엄마는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선물을 사 줄 수도 있고, 어쩌면 멋진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미 선물을 준비해 놓았더라도 아이에게 그것을 바로 주지 않고 생일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기다리는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거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감사함을 배우게 하거나, 또는 약속을 지키는 중요성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인생에 단순한 선물 그 이상의 것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만, 아이는 그 시간들이 모두 지나고 성장하기 전까지는 깨닫기 힘들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엄마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느 부자처럼 우리를 곧바로 부요하게 하실 수도 있고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단련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모두 받은 후에는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고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 앞에 쌓인 문제가 안개처럼 가려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문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약한 나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기로 다짐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20-22)

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를 읽고 일생을 통해 신앙의 8층집을 지어온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뜨거웠던 지난 여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베드로후서 1:5~7 말씀을 통해 신앙의 8층집을 완성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갈 무렵, 저는 원종수 박사의 자서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원박사님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어머니 김철례 권사님의 삶이 저에게는 더 은혜와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성도들과 원박사님과 어머니의 삶속에 투영된 신앙의 여덟 가지 성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박사님이 태어났을 무렵에는 살림살이가 비교적 풍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어머니와 남겨진 자식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이어 나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비 없

는 자식이라고 억울하게 손가락질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박사님의 어머니는 하나님만이 변함없는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사람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한시라도 몸을 굴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막막해져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했지만, 주일이면 성가대와 장년예배에서 봉사하고 교사로서 헌신하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너를 핍박하거든 감사해라. 네가 쓰임 받는 증거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축복해라”고 훈계하며 덕을 베풀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원박사님이 처음으로 받은 월급과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을 때 받은 상금을 첫 열매로 봉투째 헌금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려서부터 배운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때로는 내팽개쳐 버리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드셨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예배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점검하는 ‘절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열매로 인해 아들이 오늘날 하늘로부터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박사님은 어머니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십리 길의 새벽 제단을 쌓고 오신 뒤 차디찬 손으로 일일이 자녀들의 머리를 짚어주시며 기도하시던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합니다. 잠이 깨어 있어도 어머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저 눈을 감고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이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뭉클해져 오고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와 같은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봅니다.

버스요금이 없어 십리 길을 걸어서 학교에 도착하면 배가 고플 정도로 가난했지만, 원박사님은 오히려 ‘유익했던 가난’ 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온갖 고생들을 다 견뎌냈다고, 즉 ‘인내’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하며, 가난했기에 주님을 만났고, 가난했기에 낮아질 수 있었으며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았지만, 원박사님께도 시험을 당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대를 다니던 시절에 가난 때문에 기숙사에 머물며 형편없는 식사로 끼니를 때우고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몸이 많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육신이 약해지니 주위의 부유한 아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런 자신이 더욱 초라해지고 세상에 실망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사단의 간섭으로 실험실에서 다리를 난간에 걸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보여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시간에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살로 유혹하는 사탄에게서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썩어가는 폐를 치유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온몸이 치유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함’으로 새벽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았다면 병고침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회고합니다.

윗목에 물그릇을 놓으면 팡팡 얼어버릴 정도로 냉기가 돌았던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살았을 적, 어머니는 자식들이 겨우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자신은 굶식을 금식하듯 했어도 집에 고아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에 가던 도중 길에서 만난 벌벌 떨고 있던 장님 거지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와 어린 중수에게 할아버지를 깨끗이 씻기고 잘 섬기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어머니께 순종했지만,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생전 처음으로 화를 내며 할아버지의 더러운 몸에 손도 대기 싫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옷을 벗기며 막 구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섬기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그 집에 머물면서 중수가 화장실이며 식사며 씻는 것까지 시종들면서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던지 내용이 머릿속에 스캔(scan)이 되어 성적이 월등히 좋아져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해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밟는 과정 중에는 미국인에게도 전례가 없던 1년을 월반하는 일까지 있었으며 미국인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유창한 영어로 간증하는 일 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형편에도 그 거지 할아버지를 예수님 섬기듯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셨기에 주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시고 지혜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8층집 중 마지막 단계인 “사랑”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척 하다가 교회 밖에서는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시겠

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거지 할아버지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제 따뜻한 손길을 원하시던 예수님을 모른 채하며 지나친 일이 많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봅니다.

또한 정태기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성경을 읽으며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박사님의 어머니처럼 가정예배와 새벽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희생하는 삶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세워진 부모에게 자녀는 당연히 순종하며 따를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의 친정, 시댁식구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예배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서 믿는 분들이라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기도해 주는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를 제 자녀들에게만은 대물림하지 말자고 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제 자녀들에게는 재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영원한 재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어머니가 되어 아이들에게는 제 기도가 제일 큰 재산이며 가장 든든한 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년가족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 『너는 내 것이라』를 읽어보시고 성도님들의 신앙의 8층집을 더 튼튼하게 쌓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신앙의 8층집 설교 시리즈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여름, 약 1개월여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본 설교말씀을 교회에서 듣지 못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건’과 ‘형제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미국 방문기간 내내 은혜가 되었다. 수없이 많은 잘못을 알게 모르게 범하며 살고 있기에 바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라는 말씀에 크게 위로가 되었다.

이번 미국방문에는 차집사와 정수진 자매가 동행자가 되어 어느 때 보다도 은혜롭게 시작되었다. 출발 당일 인천공항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혜택을 항공사에서

경건과 형제사랑



우리 모두에게 무료로 해주어 한결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깊은 감사와 함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는데 같은 맘이었고 인색함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길고 세세한 심사를 받아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것은 우리를 몹시 화나게 하였다.

비자 종류가 내 것은 여행자 비자 (B-1) 였고, 차집사의 것은 미국대학에서 발급해 준 교류 비자 (J-1) 이었기에, 나에게 언제 출국할 것인지? 돈은 얼마나 가져 왔는지? 등에 대하여 묻고,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고, 짐을 조사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는 것이었다.

저녁 늦게 숙소로 도착하여 잠을 청하려니 맘이 언짢아서 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 하는 수 없이 기도를 청하였다. 그 때 성령님이 말씀으로 임하셨다. "내가 베풀었던 큰 은혜는 금 새 잊어버리고 좀 불편했던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화를 풀지 않고 있구나." 하시는 것이었다. 그렇지, 비단 이번 일 만은 아니었지. 수없이 받은 은혜의 순간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도 잊어버리는지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었다.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맘이 너무도 평안해 졌다.

“경건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다”는 이 말씀은 경건한 삶이란 잘못을 범치 말아야 함과 더불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생활을 해야 함을 더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큰 위로가 되었다.

형제사랑에 대한 말씀에서는 내게 있는 형제란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자녀·친척, 그리고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의 범주에 들어감을 느끼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는 모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면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이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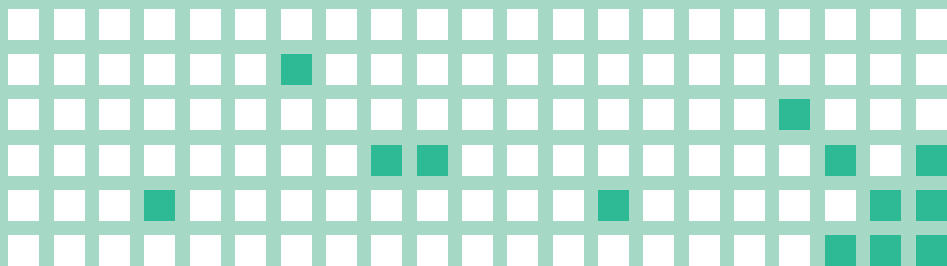
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가을이 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 제자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오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형제사랑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주고, 같은 맘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동행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적 형제사랑·부부사랑의 원리임을 인식하자고 말이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는 밤에 불을 끄고도 점자책을 읽어 줄 수 있어서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 속에서 언제나 잠들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며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강영우 박사는 원동력을 심어주는 교육,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다. 모든 운동에서도 원동력을 활용하는 능력이 파워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랑에 대한 원동력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형제사랑의 중요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이고 형제는 누구인가? 나에게 오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형제이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 한다면 우린 좀 더 풍요롭고 더 넓은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될 것이다.

희년한마당

04



집사 김영희 | 편지 |

금암 1동 희년교회를 떠나며

거동이 불편한 나에게 쌀과 반찬을 누구보다 먼저 갖다 주고, 우리 딸 중국도 보내준 고마운 희년교회.

비록 믿음이 부족하여 잘 나가지 못하였을망정 끝까지 다닌 희년교회.

부족한 나를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해 주신 희년교회, 고맙습니다.

나에게 성경책과 내의를 사주신 여전도사님. 술 먹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젠 술 끊고 사이다를 마십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이다 먹다 죽을 뻔 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चु고 떨어진 지 앞집언니가 꿀물 타 주어서 먹고 집에 와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 두렵고 아픈 곳도 많은 나를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희년교회 목사님의 정성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행복하세요.

오늘은 어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아이들 잘 키웠다고 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지요. 체육대회 날 몸이 안 좋아 게임에 참가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지만, 손잡고 찬송 부르고 게임 구경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이런 정겨운 희년교회를 떠나야 한다니 눈물이 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지만 공부 공부하며 애들을 가르쳤어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해 힘들게 일해도 힘이 많이 났었지요. 다행히도 우리의 어

려운 형편을 잘 아는 고향 장수 향우회와 그 밖의 여러 곳에서 장학금을 골고루 타게 되어 아이들을 좋은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답니다. 이젠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여 회사에 주는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도 졸고, 기운이 없어서 봉사활동도 제대로 못한 부족한 나를 보듬어 주던 희년교회와 고향을 떠나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살련 지.....

목사님과 성도여러분들께 저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11월 15일쯤 이사합니다.

희년교회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 3시에 장한 어머니 올림

추신: 부끄럽지만 애들 셋을 훌륭히 키웠다고 장한 어머니 상도 땀습니다.

희년교회

오년동안 살았네
할렐루야 아멘

꾸준히 잘 다닌
정든 희년교회 떠나려니
집이 나고 걱정되네

주님 같이 하여
줍소서, 줍소서

우리 희년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생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수원 가셔도 잘 살길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멘, 아멘

장로 조한경 | 편지 |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얼마 전 오석홍 장로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텔포스 선배로써 후배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하나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텔포스 전체를 상대로 글을 쓰기가 어색할 것 같아서 아텔포스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희년동산 편집을 맡아 수고하시는 장혜숙 집사님께 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장혜숙 집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교환 교수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캐나다에 오기 전 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을 특별한 저 개인의 신앙연수 기간으로 삼겠다고... 약속대로 그 동안 저는 토론토 서쪽 미시시가라는 도시의 '서부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훈련과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저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비전스쿨'을 이제 막 끝내고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 곳 목사님이 진행하는 '영의 세계'라는 교육을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비전스쿨은 일주일에 이틀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교비

전을 심어주는 교육이었습니다. 비전스쿨은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은 없는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여 어떤 때는 11시 때로는 자정 넘게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주 베트남, 이집트, 시리아 등에서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들이 캐나다까지 와서 아직 식지 않은 열정으로 선교보고를 합니다. 선교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비전스쿨 후 많은 청년들, 학생들, 시니어들이 단기선교를 나갑니다. 물론 파송은 교회가 하지만 선교는 자비로 나가고 장단기사역과정은 인터콥이 지원하며 현지 선교사들이 돕지요. 이 곳 서부교회는 목사님도 교인들과 함께 매해 같은 곳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선교사 중 한분이 아델포스와 장혜숙 집사님께 전해드릴 좋은 간증을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현지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들더랍니다.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선교활동도 때로 시험이 닥치면 절망한답니다. 너무 상심이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어느 순간 기도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엎드려 있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환상 중에 보이더랍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더랍니다. 꿈과 환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해서, 아무렇게나 노래를 불렀답니다. 원망조로...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속 편하게 찬양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마라나타' 하나님, 차라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마라나타' 그런데 순간... 하나님 소리가 들렸답니다. '모두 노래를 그쳐라! 지금 내 아들이 노래한다!' 그러자 천사들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갑자기 그치더랍니다. 그 선교사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은 박치 음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찬양조차 귀하게 들으시더랍니다. 천사들조차 잠잠케 하시고... 그러니 하물며 부부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델포스의 찬양은 얼마나 흠양하시겠습니까!



현)아델포스 단원들

두서없는 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 첨언하자면, 이번 비전스쿨 훈련과 영의 세계 교육을 받는 동안 맘먹고 나흘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제목은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장로로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성경을 통독해보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겨우 마칩니다. 출애굽기! 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이 모세와의 약속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한반복을 합니다. 약속하고 또 어기도, 재앙을 당하면 약속하고 또 어기고... 그러면 어느 순간 저는 성경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면 이제는 신약에 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과거에 딱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1994년 1월 1일부터 나흘 동안 금식기도했고,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무한반복 출애굽기 잘 지나왔습니다. 그 지루하다는 민수기도 읽어졌습니다.

장로님들 기도할 때 늘 듣게 되는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표현은 제가 극히 혐오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되지 뭘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지, 참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읽어졌습니다!’ 라고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하지만 세상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맞는 이 표현이 이제는 저의 문법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예레미야에 와 있고 신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와 있는데, 말씀들이 화답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눅 24:44)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해오시는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짜 맞추기! 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고난 받는 과정까지 너무나 세밀하게 구약에 기록된 것을 보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 많은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폄하한 이유도 알겠습니다. 진화론! 대적하기 어려운 세상 이론이잖아요. 우주의 역사는 수 백억년이라고 과학은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신구약의 역사를 6천년으로 계산해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가 어려웠지요. 그런데 성경에 해답이 있네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시 90:4) 이라면 하나님이 말하는 하루는 우리가 말하는 하루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약만 읽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도 다른 차원에서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논리적 연결이 없는 것이 싫었습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뜬금없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막 8:27) 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왜 뜬금없다고 했냐면, 이 질문 바로 위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의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보다 위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막 8:18)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에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말다툼이 있습니

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했던지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되지 않은 트집을 잡아 예수와 싸우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그거였잖아요.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주가 그리스도”(막 8:29) 라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니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오셨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 달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기적은 그 때 예수께서 이루셨고, 지금 이 순간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천만분의 억만 분의 일도 되지 않을 텐데 눈에 보이는 그런 정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대적하려고 했으니... 왜 하필 선악과를... 왜 벌써 마라나타? 하나님 모든 의문을 풀어 믿어지게 해주세요.

장혜숙 집사님, 아델포스 부부들 모두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 이루시라고 전해주세요. 부부싸움 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선교사님들도 부부싸움 하십니다. 권사님들을 비롯한 희년교회 교인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집사님, 장로님 모두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회하는데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 여자교도소에 있는 출통체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서로 몇 천 km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로 저희를 연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4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거의 8년을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제 친구의 생일에 친구들과 같이 생일축하 모임을 가졌는데 그 때 일어난 불상사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생일축하 술을 나눠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가 제일 좋아하던 둘도 없는 친구가 죽어있었습니다. 취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 때문에 착한 제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에 저는 지금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 온지 1년 된 2005년에 바르나산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들어 온 지 2년 동안에 가족 5명(엄마, 오빠2명, 동생, 남편)을 질병과 사고로 다 잃은 슬픔도 받았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괴로움

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며, 저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로, 그 기쁨으로 매일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있는 350명 중에 250명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바르나산 선교사님의 편지에 무척 반가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 저희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나가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저의 남은 삶을 바치려 합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세 아이들을 생각하며,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형사적인 형은 다 마쳤으나, 그 가족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책임인 80만원을 지불할 길이 없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몽골의 여성교도소에 있는 출통체척씨를,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신 희년교회 모든 교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몽골에 있는 출통체척씨도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갚아도 갚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출통체척씨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어제 저녁에 잠을 한 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오랫동안 온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희년교회의 모든 교인들과 몽골의 출통체척씨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

복이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몽골인 담당선교사 바트나산 올림.

희년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몽골여자교도소 크리스찬 리더 출롱체첵씨의 석방을 위하여 우리교회 전 성도님들이 성금을 모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표액은 80만원이었는데 총 1,053,000 원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80만원은 몽골교도소(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 253,000 원은 저희 희년교인 모두의 이름으로, 좋은 가정이루고 거둬난 삶을 바라는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출롱체첵씨 본인에게 바트나산 선교사님을 통하여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이 위에 더욱 기쁜 일은 우리교회의 열정있는 장로님과 집사님의 선교목적헌금으로 몽골여자교도소에 교회당을 건립(리모델링과 의자, 악기, 앰프 등 비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개회예배를 보기위해 바트나산 선교사님이 다음 월요일 (12월 5일) 저녁에 몽골에 갈 예정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희년교회 때문에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희년교회 성도님들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김성중 장로



시월과 십일월의 끝자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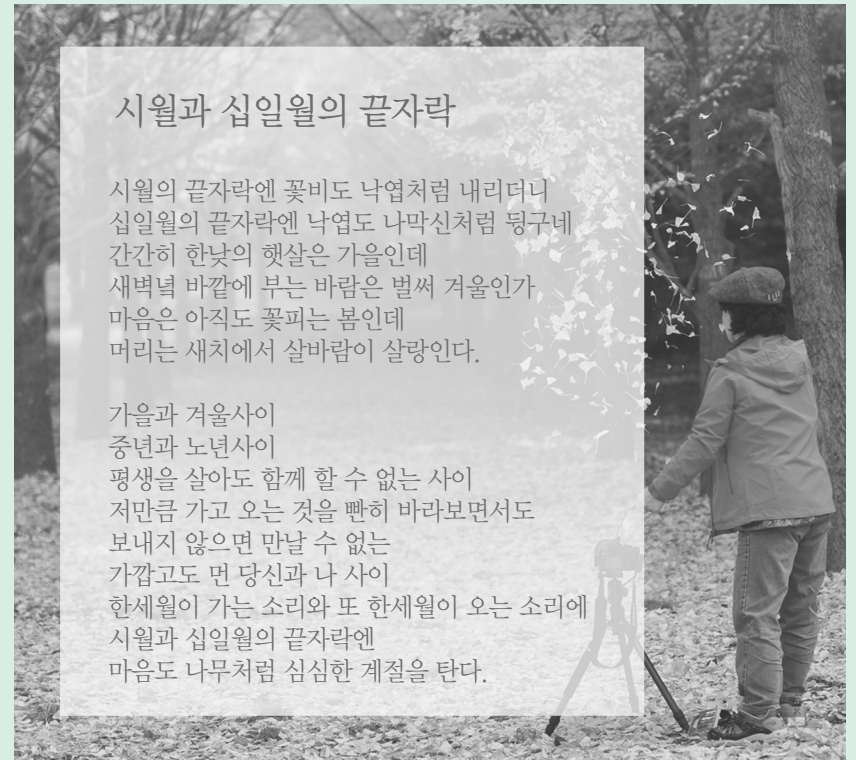
시월의 끝자락엔 꽃비도 낙엽처럼 내리더니
십일월의 끝자락엔 낙엽도 나막신처럼 뒹구네
간간히 한낮의 햇살은 가을인데
새벽녘 바깥에 부는 바람은 벌써 겨울인가
마음은 아직도 꽃피는 봄인데
머리는 새치에서 살바람이 살랑인다.

가을과 겨울사이
중년과 노년사이
평생을 살아도 함께 할 수 없는 사이
저만큼 가고 오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보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가깝고도 먼 당신과 나 사이
한세월이 가는 소리와 또 한세월이 오는 소리에
시월과 십일월의 끝자락엔
마음도 나무처럼 심심한 계절을 탄다.

십일월의 마지막 주일날, 김성중 장로님이 앞장서서 모금한, 몽골의 교도소에 수감된 출롱체첵을 돕기 위한 성금이 100 만원이 넘어서자, 우리 모두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시월과 십일월의 끝자락은 숫자 하나의 차이지만 가을과 겨울사이 체감 온도는 크기만 합니다. 그러나 희년가족 우리모두의 사랑의 온도가 그 허허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김경중



내 아들과 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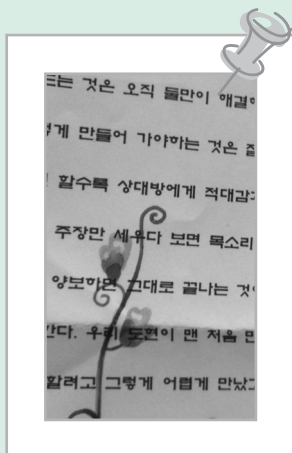
사랑하는 아들, 딸!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희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 있겠지?

먼저 둘이서 일귀나가야 될 한 가정을 가지게 됨을 축하한다. 너희들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긴 여정을 생각하며 아빠의 바람을 적어본다.

부부로 살면서 처음 만난 기분으로 항상 살아간다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부부로서 인연을 맺었다고 갑자기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뜻이 같아 질 수 없다고 본다.

이젠 어느 누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은 너희가 손을 잡고 함께 헤쳐 나갈 때 가능한 일임을 더 잘 알고 있겠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는 하



지만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적대감과 미움만 커질 뿐이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주장만 세우다보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렇게 서로 말다툼하다 보면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이 크게 번지게 되더구나.

누군가 먼저 양보하면 상황이 쉽게 해결되고 서로의 잘못을 풀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쌓일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도현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쁘고 행복하다. 며느리가 아닌 딸로써 맞이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만났나보다. 그동안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만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단다.

앞으로도 힘들면 같이 대화하며 도와주고, 즐거우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꾸나. 항상 웃음이 넘치는 진실 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 노력하며 살아가자.

정호와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너희 가정을 항상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꼭 만나길 바란다.

정호와 도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에 강순홍 목사님과 김성중, 최정순 장로님, 고옥선 권사님께서 전북대 프랑스 학과에 교환 교수로 방문 중인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엠마뉴엘 니키에마 교수와 사모님 마논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니키에마 교수가 강 목사님께 보낸 이메일 서신입니다.

강 목사님께,

지난 화요일에 모임을 마치고 바로 메일을 보내지 못해 죄송해요. 저와 (아내 마논은) 저희가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와 축복과 기도에 감사하고 있어요. 영혼을 위한 영원한 양식과 더불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모임을 마무리한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재확인했지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의 고백



을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두 분의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친구들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 기도로 헌신하려는 자세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다른 종교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증인이나 무슬림들과 만나 대화하기도 하고 코란이나 불교 경전도 읽었지요.) 10년 전에는 성경 지식과 신앙을 키우기 위해 성경공부를 했어요. 그 후로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고요.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관대함으로써 좀 더 배우고 싶었죠. 불교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훈련이나 명상, 갈망을 존중합니다. 불교신자들은 어떠한 신도 믿지 않아요. 부처는 분명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에게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난 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받아들일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확실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재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말씀 덧붙이자면, 오는 주일에 대해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에 친구들이 몬트리올로 돌아가는 데, 그전에 저희와 함께 서울과 주변 지역(박물관, 궁, 순교자의 벽, 이화여대, 사원, 남산타워,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싶어 하네요. 주중에는 전북대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야 함께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에 갔다가 주일 오후에야 돌아올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곳에서 보낼 예정이니 분명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조만간 다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주안에서... 엠마뉴엘 니키에마 드림

Dear Reverend Soon,

I am sorry for writing that late after our meeting this Tuesday. I (and my wife Manon) want to thank you for the discussion and mostly your blessings and prayers. It was a wonderful way to end a delicious meal shared together and everlasting food for our spirits. We do believe in Christ and this re-confirmation of Jesus as our saviour is very welcome and I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Please extend our thanks to the two elders who patiently witnessed our confession and prayed with us. Our friends were touched by this compassion and their willing to attend and contribute with their prayers and support.

Although, I am remain curious about other religious faiths (I discussed with and read literature about Jehowa witnesses, Muslims and the Quran and Buddhism as well). About 10 years ago I took Bible study courses to strengthen my faith and knowledge of the Bible. After that, I wanted to know more about other belief systems,

not to shop around but to educate myself and be more open and more tolerant to others. I do admire the discipline, meditation and aspiration to goodness of Buddhism, but they do not believe in any God and strongly assert that Buddha is not a God. In that regard, Buddhism is not a religion as far as I understand it. Our conversation reassured me that we cannot save ourself and that only Christ may save us if we ask for his coming into our hearts and lives. In that respect, I am clearly christian and thank you for this re-confirmation.

The other reason for my email was also to apologize for next Sunday. Our friends are returning to Montreal next Saturday and wanted to visit Seoul and the surroundings with us (two museums, the palace, the martyrs' wall, Ewha University, a couple of temples, the N tower and Namden market). As I am teaching on week days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weekend is the most suitable time for us to travel together. We are therefore going to Seoul tomorrow, but returning on Sunday afternoon. We will miss the Sunday thanksgiving service and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may cause. As we will be celebrating Christmas here, I am sure we will have other opportunities to meet and discuss as well.

Thank you again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Yours in Christ, Emmanuel Nikiema

우리의 기도, 희년동산

전 부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 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 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11호 손정권집사 글 중

희년동산을 발간하는 일은 조금은 번거롭고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팀장님을 비롯하여 팀원들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고로 모두들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여러 차례 첨삭과 교정을 보고, 그렇게 다듬어진 글이 출판사로 넘어가서도 또 여러 차례 편집을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손길을 거쳐 얼굴을 내미는 희년동산... 그럼에도 발견되는 오타는 여러 날의 밤샘작업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하하

하지만 기쁨도 큼니다. 깊은 감사에서 우리나라오는 살아있는 희년의 간증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보는 '특혜'를 얻어, 날 것 그대로의 감동을 먼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웃기도하고, 울기도 하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혼자 감사하며 오롯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년교회에 온 지도 벌써 올 해로 7년째입니다. 교회 등록하자마자 집사 재교육부터 확신반, 성장반을 통해 나의 신앙을 재정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고 곧바로 교회의 여기저기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봉사'라는 단어는 너무나 죄송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부터인가 마음의 기쁨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화선지에 먹물 스미듯 색깔도 불분명한 매너리즘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은 어디가고, 오래전에 채워진.. 이미 맛과 향을 잃어버린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주여... 겉만 요란한 너무나 흙집 많은 물통이었음을...자책과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무나 포근한 음성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의 흠집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너의 흠
집을 알기 때문에 길가에 예쁜 꽃을 심어 너를 사용하
였지.” 11호 박인숙권사 원고 中

갑자기 따뜻한 햇살이 나에게로 쏟아지는 느낌이 들
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번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 다시 한 번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유낙하를
해보는 거야.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품에 제
대로 안겨 보는 거야. 11호 양희천장로 글 中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비록 원대한 꿈을 펼쳐 보이
며 돋보이게 살아가는 삶은 아닐지라도, 살면서 때때
로 실수와 방황으로 흠 있게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뜻
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지. 11호 홍진명집사 글 中

2012년도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찬양으로 만
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초등부 아이들 웃음
소리가 그리웠지만... 조용히 그 분의 품 안에서 사랑
받고 사랑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새 해를 보내고 싶습
니다.

내가 하고자할 때 언제든지 누구의 감시 없이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
인지 11호 이근모집사 글 中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
에도 다시 한 번 힘내야겠습니다.

우리도 파스타가 되자.
소스와 함께 형클어지고
인생의 맛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동그라지고 포옥 익어
단호박처럼 되어보자
몽게질수록 더 잘 익은 돌체쥬까가 되는 것처럼

11호 이경란성도 글 中

나의 삶은 ..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은 상상 할 수 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한 호흡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맘껏 누릴 수 있도록 하소서...
그것이 크던지 작던지, 힘들던지 간에
무조건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희년동산 창간호 장혜숙집사 글 中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제인구달 『행복한 밥상』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연(흙)에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호자는 처음으로 만들어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완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찬사를 받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수 만년이 지나면서 인간들은 자기 욕심과 입맛에 맞게 욕심을 채우려고 먹고 입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로 인해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문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주어진 그대로의 자연식을 버리고 입맛에 맞게 익히고 구운 음식을 즐기고, 또 채식 보다는 육식위주로 하다 보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더 기름지고 살진 영양가 높은 식품을 얻기 위해 육상 동식물은 물론 바다 속 물고기까지 양식으로 키우고 있다. 이렇듯 인간이 상품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창조질서를 무너트리고 있음을 제인구달은 『희망의 밥상』이라는 책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그 책에는 인간의 욕심을 위해 가축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어린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쉽게 구하여 먹는 영양덩어리 계란과 우유를 살펴보자. 계란은 알만 낳게 하는 산란용 닭에서 얻어지는데 한마리가 겨우 서 있을 정도의 좁은 철망공간에 2,3마리를 넣어 사료만 먹여 알만 낳게 하여 얻고, 식용닭(육계)은 그와 비슷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만 찌워 약 2주정도만 키우다가 시장에 출하한다는 것이다. 우유는 더 비참한 환경에서 나온다. 젖 짜는 소도 역시 푸른 초장에서 맘대로 다니며 한가히 풀 뜯는 것이 아니라 강제 임신과 출산을 통해 우유를 제공하게 한다. 더 심한 경우는 새끼소를 어미 소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 묶어놓아 새끼와 어미 소가 서로를 향해 애타게 울부짖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젖이 더 많이 부풀어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또 고기를 주는 육우들도 상황이 안 좋진 마찬가지다. 역시 풀밭은 구경도 못하고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주인이 주는 고열량 사료를 먹고 살만 찌는 것이다.

달콤한 영양덩어리 꿀도 벌이 1cm도 안 되는 날개로 수십km를 날아 꽃속에 있는 꿀을 머리털 보다 가는 입으로 물어다 모아두면 인간이 그걸 마치 자기 것 추수하듯 거둬가서 나온 것이다. 더 많은 꿀을 얻기 위해 살충제까지 연막하며 키우고 있다한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생산된 계란과 소고기와 꿀 등은 그 속에 알 수 없는 맹독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먹는 인간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질병이 생기고 치료되지 않는 병이 생긴다. 자업자득이다.

이제 좋은 제품, 풍부한 영양을 갖춘 제품을 요구하고 먹기를 원하기보다는, 덜 정제 되고 영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연에서 스스로 자란 제품을 얻기 원한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덜 세련된 제품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추수감사절 기도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살아 숨 쉬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일터를 주셔서 가족을 책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 명령 받들어 내려주신 복에 감사드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오늘의 고난은 내일 복주시기 위한 시험인줄 알고 인내와 소망을 갖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저희가 힘들지라도 읊처럼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해도 십자가 위에서 당했던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리석고 속 좁은 저희들은 누가 저희를 비난하면 주먹으로 갚고 싶고, 눈에는 눈으로 칼에는 칼로 갚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저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저희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럼에도 저희는 때로는 학식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지위로, 때로는 명예로, 다른 사람을 알고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가장 겸손하셨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었을 때 백성이 울고 회개했던 것처럼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 하셨지만 저희는 먼저 저 자신과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일이 더 중요해서 교회의 모임에는 소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주님의 일에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남겨서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찬양대로,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로, 식당봉사자들은 식당의 일로, 각자의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니 오, 아니오가 예, 예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그 복을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은 일 년에 두 번 봉사축제를 나가는 날입니다. 날마다 못해도 오늘 하루 만이라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저희들 기쁨으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모든 순서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강순홍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깊이 있고 영성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녹아 불순종의 영을 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귀한 희년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영광돌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1.11.20)

30목장 조영식

희 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년 초에 세웠던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 넋에 떠오르는 해처럼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산다면
 산 처럼 큰 뜻을 이루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부 박상민

희 생하고 헌신하신 주님을 위해
 년 (연)주와 찬양을 해요
 동 네에서 올려 퍼지는
 산 속의 메아리 희년교회로 오세요.

초등부 1-1 고현빈(행복이), 기윤서(기쁨이), 김영교(소망이)

희 년교회 초등부 1학년 1반 친구들은요
 년 (연) 날리기를 좋아한대요.
 동 산 위에 연을 가지고 올라가 연을 날려요.
 산 들바람이 산들산들, 연도 산들산들, 우리의 마음도 산들산들.

초등부 2-1 장혜원

희 망이 짝 트게 도와주시고
 년 (연)처럼 꿈을 높이 날리게 도와 주시며
 동 서남북 어디에나 있어도 곁에 있어 주시는
 산 보다 높으신 이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초등부 5-1 정내원

희 년교회에는
 년 년마다
 동 네 곳곳에서
 산 더미 같이 새신자들이 몰려온다.

초등부 5-1 오정민

희 년교회는
 년 (연)꽃처럼 더러운 곳에서 자라도 깨끗하고
 동 생처럼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해주고
 산 새들처럼 항상 웃음이 넘친다.

초등부 5-1 황채원

희 귀한 교회
 년 마다 특별한 행사를 여는 교회
 동 무들과 어울려 친하게 되는 교회
 산 더미처럼 푸근한 맘을 가진 엄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

초등부 5-1 정다혜

희 망을 여는 교회
 년 도마다 열리는 교회
 동 네들이 하나하나 모여 있는 교회
 산 들처럼 든든히 가족을 이루는 교회

초등부 5-1 정 솔


희 년교회에선 아름다운
 년 (연)꽃처럼
 동 심과 희망을
 산 더미 같이 꽃 피운다

초등부 5-1 교사 장혜숙

희 망이 보여요. 그 희망을
 년 (연)에 달아 높이높이 날립니다.
 동 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산 아래로 질지라도, 내일 새로운 희망이 떠오릅니다. 희년, 파이팅!

초등부 6-2 박하진

희 년교회에 다니면
 년 년마다 항상 행복하고
 동 동 뜨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산 더미처럼 좋은 기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집사 정은숙 | 시 |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과 아직도 못 다 부른 노래

유치부를 떠나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들려주어야 할 주님의 따스한
사랑 이야기를 다 전하지도 못한 채...
하얗게 옷 벗은 나무들 사이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 전하지도 못한 채...
정들었던 우리 아이들 곁을 이제 떠나려 합니다.

이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어여쁜 꽃보다, 하얀 눈보다 더 부드러운 아이들의
미소를 홀로 가슴에 간직하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곁을 떠나려니
자꾸 자꾸 눈물이 납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해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해
좀 더 안아주지 못해
미안한 맘들은
이제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놓고.....

부족한 나를 향해
늘 웃어주던 아이들의 정겨운 마음들과
또 다시 만날 고운 날을 기약하면서....
그 때는 새롭게 기뻐하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지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알게 한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 ...
잊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작고 여린 가슴 속으로 날아가렵니다..
영원히.....



편집후기

많은 신앙인이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가 당연히 누릴 최고의 응답이며 미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축복과 함께 전도 미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과 불신자를 위하여 전도 미션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여기 “희년동산”이 있습니다. 희년동산은 희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절대자인 그 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간곡함과 희원을,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그분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 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고백을 담은 진솔한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혹은 우리의 이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우리의 소통방식이나 주제와 내용은 다양합니다.

“희년동산”은 희년가족의 이러한 소통의 욕구를 소중히 담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2011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1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인 “전도”를 위해 희년동산을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살포시 건네 보시다.

다가오는 2012년에도 우리 편집 팀은 변함없이 희년의 부흥과 전도의 미션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고백을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희년가족 여러분 HAppy New Year~~~!

‘희년동산 출판팀 일동’

